



해제

전국 사찰과 선원은 2월 24일 불기 2556년(임진년)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석달 열흘간 안거 정진한 월정사 만월선원 스님들이 만행에 오르고 있다.



월정사 만월선원의 수행납자들이 안거 마지막날까지 정진하고 있다. 납자들은 이번 안거동안 자신의 마음자리에 만월을 띄웠을까?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헤거 스님이 2월 24일 열린 동안거 해제 법회 및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제에서 탄허 스님의 수행일화집 <방산굴의 무영수>를 봉정하고 있다.

공부·인재양성 평생 바친 분

상좌·시봉 스님들이 말하는 스승 탄허 스님



헤거 스님 삼보 스님 인보 스님

탄허 스님(1913~1983)은 한국 불교의 대강백이자 유·불·선 삼학을 두루 통달한 철학자이다. 스님의 탄신 100주년과 열한 30 주년을 맞는 시봉 스님들의 감회는 누구보다 남다르다. 시봉 스님들은 탄허 스님은 온화하면서도 엄격했던 은사로 회상했다.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헤거 스님(금강선원장)은 가장 먼저 스님의 인재불사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다.

헤거 스님은 “탄허 스님은 항상 ‘큰 인재가 나와야 세상이 좋아진다’고 항상 강조했다”며 “국가와도 바꿀 수 없는 인재가 나오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력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다”고 밝혔다.

실제 탄허 스님은 인재불사의 사명감으로 강원외의 모든 교재를 한역(韓譯)했다. 그 분량 75책에 이른다. 거기다 사명감이 경전을 번역을 소의 경전 강원 전 교재들 대학과정까지 교과서를 전권을 번역 그제 75책이 된다. 스님이 해 오신 분량은 세조 당시 신미대사의 간경도감 설치해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 그때의 국책사업도 20여 책에 불과 하지만 스님은 혼자서 75책을 번역했다.

헤거 스님은 “탄허 스님은 완벽한 표준어로 100년이 지나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할 때 신중을 기했다”며 “언어의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스님의 번역본은 열반 30년이 지난 지금도 보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헤거 스님은 은사 스님이 항상 강조한 시간 관리에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스님은 “탄허 스님은 9시에 자고 새벽 3시면 일어나셨다. 첫잠이 깨면 다시 높은 일은 결코 없었다”며 “1분 1초의 낭비가 없으신 분이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할 일은 그날 마치셨고 시작과 끝이 항상 같았다”고 회상했다.

다른 시봉 스님들의 회상도 철저한 학승이었다. 동국대 이사 삼보 스님은 공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신 분으로 기억했다. 스님은 “스님의 공양을 들고 오다가 옆에 식사 시간이 1시간이 늦어진 적도 있지만 화내시지 않으셨다”며 “하지만 공부에 게으름이 있으면 서릿발 같은 성격으로 꾸짖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원문을 다 외우지 않으면 아예 가르쳐 주지 않았다”며 “둔재라 공부 때문에 서러움을

9시 취침, 3시 기상

1분 1초 허투로 안 써

“공부만은 탐하리”고

독려하신 엄한 은사

좀 받았는데 요즘은 그때 서러움을 더 받더라도 더 배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한다”고 아쉬워했다.

탄허 스님을 시봉했던 인보 스님은 “가르칠 때 ‘이 시간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단 10분의 여유도 주지 않으셨다” “책을 한번도 보지 않고 강의하셨는데 그 분량이 방대했다. 필기만 정리하려고 몇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공부를 탐하라’였다”며 “월정사에 대학 수련회가 열리면 교수들의 특별 강좌는 빼놓지 않고 청강하셨다. 배움에는 지휘고 하가 없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오래 사셨으면 좀 더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평창 월정사=신종일 기자

한암·탄허 후학, ‘禪教一致’ 정진 다짐

월정사 동안거 해제... 탄허 스님 탄신 100년 다례제

불교에서 ‘달’은 깨달음을 의미한다. ‘동방 만월세계’는 약사정토 사상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며,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선사의 경책은 깨달음을 앞에 두고 이를 찾지 못하는 미혹한 범부를 꾸짖는다.

월정사에는 자신의 마음자리에 ‘만월(滿月)’을 띄우라는 의미에 ‘만월선원’이 있다. 오롯이 자신을 채운 보름달처럼 자신을 채우라는 의미일 것이다.

선원을 찾은 날도 동근 만월이 떠오른 정월 대보름, 불기 2556년 동안거 해제를 앞둔 날이었다. 올해 동안거에는 20여 명의 수좌가 방부를 들이고 깨달음을 위한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사실 월정사에 있어 올해 동안거 해제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월정사에 주석하며 수많은 대중에게 불교의 참된 교리와 사상을 전했던 현대불교의 대강백 탄허 스님의 탄신 100 주년을 기리는 다례제가 해제 법회와 함께 봉행되기 때문이다.

흔히 탄허 스님을 떠올리는 이미지는 조계종 종풍을 따른 선사보다는 많은 학인과 강사를 키워낸 대강백이자 유·불·선을 두루 살필 수 있었던 철인(哲人)이다.

하지만 지근거리에서 스님을 시봉했던 상좌 스님들은 탄허 스님은 ‘선교일치(禪教一致)’

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후학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선지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좌들에게는 한권의 경전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수지 독송할 것을 권했고, 교학을 공부하는 스님들에게는 참선을 통해 자신의 공부 가 체화할 것을 강조했다. 실제 탄허 스님은 매일 아침 참선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월정사 주지 정남 스님은 “조계종 종풍을 지낸 한암 스님으로부터 월정사의 가풍이 시작됐고, 그 제자였던 탄허 스님이 ‘선교일치’ 관점에서 불교를 더 넓게 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며 “월정사 만월선원, 단기출가학교, 템플스테이 등의 문화행사는 모두 두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제를 한다는 것은 정중공부가 동중공부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불교 수행은 동중과 정중의 가풍을 두루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만행은 세상과 접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넓힐 수 있는 계기인 만큼 납자들이 정중·동중공부의 진의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동안거 해제일인 2월 24일에는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제가 해제법회와 함께 봉행됐다. 이날 해제법회에는 1981년 미국 고승법회에서 설한 탄허 스님의 육상법문이 후학과 대중들에게 깨달음의 진의를 전했다.

“유·불·선 삼교 표현이 불교는 만덕이 귀인이라 우주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유교는 ‘정일집중’이라 정의롭고 한결같이 중도를 삼는다. 도교는 ‘득일만사철’이라 하나를 얻는 것 같으면 만사는 끝난다. 불교는 ‘명심견성’, 마음을 밝혀가지고 성을 본다. 마음이라면 총체적인 면모를, 성이라 할 것 같으면 마음의 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월선원 內 20여 수좌 정진
‘禪·教는 하나’라는 가풍 지켜
결제는 동중공부로 나가는 길

탄허 스님 수행일화집 봉정
스님 가르침 선양 의지 다져

다례제에서는 탄허 스님의 수행 일화집 <방산굴의 무영수>봉정식이 함께 진행됐다. <방산굴의 무영수>는 스님의 도반·법제자 11명, 문도 직계제자 9명, 수도원 시절 인연 6명, 비구니 제자 9명, 재가 인연 15명, 재가 제자 15명 등 총 65명이 스님과의 인연과 일화를 구술 정리한 것이다.

주지 정남 스님은 간행사를 통해 “스님의 고뇌, 행보, 역사는 한국 현대사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발자취”라며 “앞으로 문도회와 월정사는 탄허 스님의 모든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스님의 역사 및 사상, 지식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진력하겠다. 또한 스님의 수행정진과 사상이 산중의 가풍으로 종단의 종풍으로 진작돼 흠날리 시대에 세상이 나아갈 지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암문도회 운영위원장 월면 스님은 봉정사에서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의 법통을 계승해 선문에 정진하시고 선어에 교학을 전승해 본지풍광의 심법으로 유·불·선 삼교의 학술을 회통하셨다”며 “후학을 위해 강원외의 모든 교재에 현도·번역하고 오대산, 영원사 수도원, 초대역경장 등을 역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허 스님의 이력과 정신은 한국불교사에 찬란했지만, 스님을 연구하는 후학들의 노력이 미치지 못했다”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않아, 수행일화집이 스님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연구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다례제와 봉정식에는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헤거 스님, 월정사 선덕 각수 스님, 동국대 이사 삼보 스님 등 상좌 스님을 비롯해 만월 선원 수행자 스님, 산내 암자 비구니 스님, 재가제자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석례 평창군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평창 월정사=신종일 기자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격하고 있다.

알기 쉬운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연 민 행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통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